

# “37년 만에 다시 쿠데타 당한 기분”

## 5·18 기념재단·3단체, ‘전두환 회고록’ 연일 비판… “명예훼손·판매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검토”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전두환씨의 회고록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전씨의 주장은 치졸한 변명과 망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념재단과 3단체는 5일 오전 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7년 만에 다시 쿠데타를 당한 기분”이라며 “계엄군이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상한 것이 자위권 발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복적 현상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씨가 자신을 5·18의 희생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전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1995년과 1996년의 서울지검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 1996년 1월9일 서울지검 수사자료 중 당시 군 고위 관계자 진술을 살펴보면 ‘전두환의 친필 메모지에 관한 전언’ ‘희생이 좀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주십시오’ ‘공수부대를 너무 기 죽이지 말라’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

지휘체계와 관련, ‘참모차장이나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도착 즉시 보안사로 가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사대 수습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문장도 기록돼 있다.

또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측이 5·17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비롯, 주요 상황에 대해 주도하고 있었다’는 등의 진술도 포함됐다.

기념재단과 3단체는 김수환 추기경의 구술녹취문(전씨 면담 관련 내용)도 제시하며 1980년 5월 전씨가 사실상 정국을 주



부친 묘소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가 5일 오후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위치한 부친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캠프 제공>

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지난 4일에는 전씨가 1980년 5월 당시 자위권 발동을 지시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확인되기도 했다. 육군 제2군사령부의 ‘광주권 총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초치 사항’에는 ‘장관, 총장, 군사령관, 합수본부장,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육사교장(차)라는 손 글씨가 적혀 있다.

1980년 5월21일 작성된 이 문서는 기무사가 보관하다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에는 또 ‘전(全) 각하(閣下) : 초병

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다. ‘전각하는 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위권 발동 명목으로 발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날 전남도청 앞에서는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다.

재단과 단체들은 그 동안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명예훼손 등 전씨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다. 또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

이들은 전날에도 논평을 내고 “12·12

군사변란의 주동자이자 5·18 내란 학살의 주범인 전씨가 치졸한 변명과 망발을 늘어 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1997년 4월 대법원은 5·18 학살의 주범으로 전씨를 겨냥했다.

대법원은 “1980년 5월27일 새벽 광주 재진입 작전을 하려면 시위대와 교전이 불가피하며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된다”며 “이를 피고인 전두환 등이 일면서도 작전을 강행한 것은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 “국민의당, 불법동원 납득할 조사결과 내야”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민의당 광주 경선 불법 동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악용해 네거티브나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당 후보들은 2017년 대선이 치러지게 될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되새겨야 한다. 국정농단, 현정유린에 대한 주권자 심판으로 (대통령이) 파면, 탄핵된 초유의 상황이다. 그만큼 정치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5월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지역주의라는 낡은 기득권에 빠져 대한민국을 발목을 잡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야합의 길을 간다면 그 길을 끊고 다시는 못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

### 김종인 “최고조정자 되겠다” 출사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5일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며 대권 출사표를 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한다”며 “바로 그 통합 조정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제3지대 연대 등을 통한 ‘위기돌파 통합정부’를 내세우고, 제3지대 등을 통한 연대를 강조했다.

또한, 개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를 새롭게 하면서 개혁 중의 개혁 한발개정을 완수하겠다”며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개헌을 약속했다. /뉴시스

## 이혜훈 “국민의당, 자력으로 대통령 된다고 착각”

유승민계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당은 자기들 자력으로 (대통령에 당선)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투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태극기표 중 상당수가 안 후보에게 물려갔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극기 들고 집회에 가시는 분들이 광화문에 나가면서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지만 중북 좌파에게 나라를 넘길 수는 없잖아” 이라며 “나간다”며 “그분들은 모 후보가 되는 게 그렇게 싫으

신가 보다. 그러니까 모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안철수라도 밀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분들이 보면 지지율이 낮은 후보보다 지지율 2등하는 후보에게 무조건 물표를 쥐서 그 후보가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후보가 사드를 반대하건 안하건 무조건 모 후보가 싫으니까 다음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 후보를 좋아하지만 유 후보를 지지하면 문 후보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 위해 유승민 후보 대신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구 가니 이혜훈이다” 하고 사진 찍어달라는 분들이 있어 유 후보 잘 부탁한다고 하니 ‘유승민이 좋긴 한데 적으면 문재인이 되잖아’ 해서 기겁했다”며 “일종의 ‘문지마 쓰너미’”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막말과 저주의 대행진”이라며 “탄핵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핵심들을 청산은커녕 완전히 못 보지 주면서 우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바른정당 흡수통합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당내에서 딱 1명 의원 얘기는 있지만 그분 빼고

### “태극기표 중 상당수가 안 후보에게 물려갔다”

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왜 나왔냐 필필씨는 분들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친박 8인,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단일화) 명분이라도 생기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태라면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단일화 안 되면 (유 후보는) 완주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김무성 선대위원장장의 입장 관련 질문에는 “김 위원장 본인도 홍 후보의 저런 행태를 납득하지 못한다”며 “홍 후보가 변하는 게 지금 선결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뉴시스

### 非文 이언주, 6일 탈당 후 국민의당행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지역구 인사들을 만나 양해를 구했고, 안 전 대표와도 직접 통화하며 탈당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재는 대표적인 ‘김종인계’로 꼽히지만, 지난 2015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기 전까지는 ‘안철수계’로 분류됐었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가다보면 행복한 교육이 기다려줍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